



# 창조

##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25) 노아의 홍수와 진화론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4) 노아가 방주를 짓다 - 이종현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33) 인생의 시야 - 김경태               | 8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8)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1쪽 |

## 인사말



빠른 전염력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항원으로 무장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거침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옷을 입은 바이러스처럼 영적으로도 새로운 신학사상과 논리로 무장한 거짓 영들이 거침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이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새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력이 강해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참 영과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창조과학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강한 믿음의 체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더욱 전념하라는 귀중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임진규 올림 -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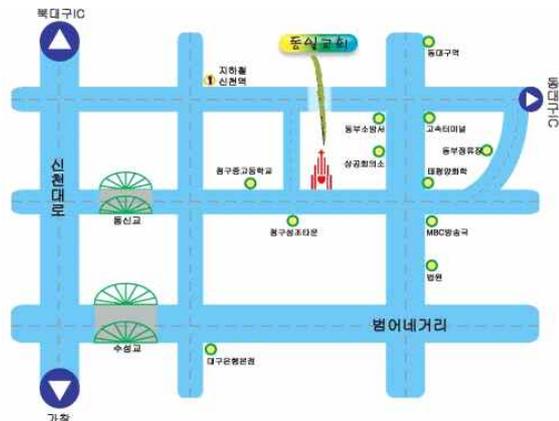
일시: 2009년 9월 3일(목) 오후 7시

장소: 동일교회 306호

☎ (053) 743-6058

내용: In the Beginning (최신판)

(by Walt Brown)





## 노아 홍수와 진화론 (Noah's Flood and Evolutionism)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창 6: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 창세기 6:21, 새번역*

*"As for you, take for yourself some of all food which is edible, and gather it to yourself; and it shall be for food for you and for them." - Genesis 6:21, NASB*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ood that is to be eaten and store it away as food for you and for them." - Genesis 6:21, NIV*

*Store up enough food both for yourself and for them. - Genesis 6:21, CEV*

17절에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6:17).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홍수, a flood'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셨다. 히브리어로 맵불(mabbul)인데 성경에서 다른 국부적 홍수에 대하여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노아홍수, 즉 'the Flood'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한다. 노아홍수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 홍수의 목적은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모두 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로서 이들을 멸하고자 심판 한다면 이는 오직 전 세계적인 격변적 홍수만이 가능하다. 노아홍수에 대하여 지역적인 또는 잔잔한 홍수로 말하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진화론적인 사고로 성경을 대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노아홍수가 진화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노아홍수를 지역적 홍수로 언급하는 사람들을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진화론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바로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놓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하는 지질시대표이다. 이는 전적으로 화석에만 의존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진화 역사이다. 물론 지구상에는 이러한 역사를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단지 흩어져 있는 화석을 지질학 교과서에 진화순서로 모아 놓은 것뿐이다. 실제로 이는 과학책에 들어갈 그림이 아니라 고대전설과 함께 수록되어야 더 어울릴 그림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 그림이 과학책에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지질시대표를 보면 모든 화석의 맨 위에 인간을 그려놓았다. 즉 인간은 진화의 산물로써 무구한 역사를 통해 설 틈 없이 생존경쟁하며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로 변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진화론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억 년 동안 생존경쟁을 묵과하시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진화의 순서로 생물들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만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셔서 멸종시켜버리고, 저렇게 만들었다가 또 멸종시켜버리시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신 다음에야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성공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진화론과 협상된 이론은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피조물이 고통 받기 시작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창조를 하셨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경적 교리나 하나님의 속성에도 위배된다.

화석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단순한 자연과정으로 결코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다량의 흩더미가 그 생물들을 갑자기 덮어야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발견된다(순서적으로가 아니라). 즉 전 세계적인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오늘날 관찰되는 화석의 모습과 분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지질시대표는 없으며 하나님의 노아홍수 심판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십억의 지질시대표가 일 년여의 홍수 심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화석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으로 매몰된 끔찍한 모습이다. 심판의 증거이다. 화석은 진화의 증거나 진화역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매몰되는 생물들의 모습으로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리도 없다. 종류대로 방주에 타라고 하신 말씀은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과,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왔던(8:19) 모습과도 연결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화가 아닌 처음부터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신 질서를 언제나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449&param=type=C|authorname=이재만> **참조**

# 노아가 방주를 짓다

## (Noah Builds the ARK.)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져서, 노아의 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및 특별한 부류의 동물과 새들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후에(120년 동안 내내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라, 그 120년 기간 안에 몇 년인지를 사용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 대홍수 이전의 시간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대홍수 이전의 상황과 현저하게 비슷하다. 그때는 인구가 폭발할 정도였고, 죄악이 통제 불능이었으며, 도덕이 무너졌으며, 결혼과 가정생활이 썩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특별한 천상의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가계의 불경건한 여자들과 결혼한 셋의 가계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이 한 가족을 통하여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결정이 대홍수를 초래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대홍수에 대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지만, 어떤 연대기에서는 BC 2,350년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추정한다. 높이 평가되는 한 권위자(Unger의 성경 핸드북)는 그것이 BC 5,000년 이전이었다고 말한다. (역주: 대략 BC 2400년경이다.)

### 대홍수

성경은 대홍수가 전 지구를 덮었다고 말한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오직 노아에게 알려진 사람이 사는 땅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역주: 그것은 학자의 생각일 뿐, 성경은 일관성 있게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말한다.) 다른 이들은 전 지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The Bible says the Flood covered the earth. Some Bible scholars say this means only the populated earth known to Noah. Others say it means the entire earth.)

## 순종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커다란 방주를 짓고, 동물을 태워라. 그런데 호수나 바다에서 먼 마른 땅 위에 그것을 지어라. 그러나 미래의 모든 인류에 대한 희망이 노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 있다니, 이상한 명령인 것처럼 보인다. 열쇠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자에게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God's command must have seemed strange to Noah. Build a large ship, fill it with animals, but build it on dry land far from a lake or sea. But the hope for all future mankind rested on Noah's complete obedience, even to a seemingly strange command. The key was the Commander, not the command. We must all remember that!)

## 노아

셋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선조인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480세였으며,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600세였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배를 만들던 사람이라서 방주와 같이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언급된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자녀들은 없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며 950세에 죽었다.

## 함

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지 24년이 지나고, 대홍수가 일어나기 96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세 아들들 중 가장 어렸다.

함의 네 아들들은 구스, 이집트, 붓, 그리고 가나안이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었다. 함의 가족은 창세기 10:6-20에 열거되었다.

## 셈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가계가 셈족의 아버지인 셈을 통하여 왔다.

셈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98년 전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지 22년이 지난 때이다. 그는 노아의 세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역주: 어떤 번역에는 셈이 야벳의 동생이라고 되어있는 곳도 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및 아람이다. 그들로부터 페르시아, 앗시리아, 칼데아, 리디아, 및 시리아의 사람들이 나왔다. (역주: 앗시리아는 앗수르의 직계 후손들이 아니라, 앗수르를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니므롯 계통일 가능성이 크다.) 아브라함 및 나중에 예수님은 아르박삿의 가계를 통하여 나오셨다. 셈의 가족은 창세기 10:21-31에 언급되어 있다.

## 야벳

그리스와 남동 유럽의 거주자들은 일곱 아들의 아버지인 야벳의 후손들이다.

야벳은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쎬를 도와서 그의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함은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카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 야벳의 가족은 창세기 10:2-5에 언급되었다. 그는 노아의 두 번째(역주: 어떤 번역에는 첫 번째) 아들이다.

## 방주에 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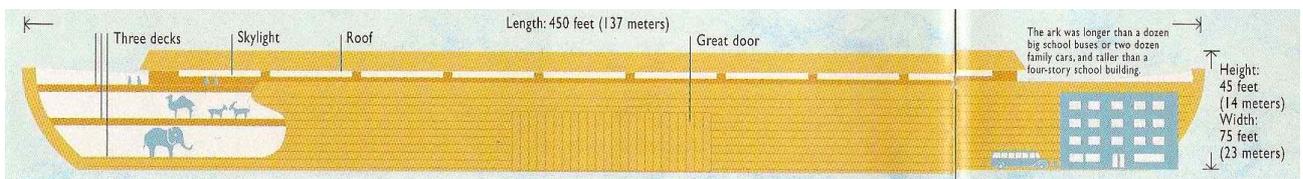
방주에 탄 승객으로 여덟 명이 언급되어 있다. 즉,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쎬,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로 그 외에 언급된 사람은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아는 이 시점과 그 이후에도 다른 자녀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들도 이 시점에서는 거의 백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자녀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대홍수 이후에는 자녀를 가졌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조상(아마 할아버지)인 므두셀라가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969세라는 놀라운 나이에 죽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대홍수의 결과일 것이다. (역주: 아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데려가셨다.)

## 노아의 방주 - 그 크기는 어떠했나?

### 방주의 크기

만약 방주를 축구장에 갖다 놓는다면, 양쪽 축구골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방주의 길이가 450피트이므로, 축구장 한쪽 공대에서 다른 쪽 골대까지의 길이보다 1/5배정도 된다. 방주의 길이 450피트는 약 137미터이다. 폭 75피트는 약 23미터이며, 높이 45피트는 약 14미터이다.



### 대홍수의 시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나이는 480세였다.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었다(역주: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지 22년 후에 쎬가 태어났다. 1년 뒤에 야벳이 나왔고, 그 1년 뒤에 함이 나왔다(세 아들의 출생 순서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데 120년이 걸렸으므로, 세 아들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방주 주위에서 자랐다.

## 대홍수의 물들

대홍수의 물의 근원은 두 가지이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는 바다 혹은 땅 속의 거대한 샘들이 강하게 솟아나온 것을 암시한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는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 7:4, 11).

## 방주를 만든 나무

고펠 나무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싸이프러스 소나무 혹은 백향목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고펠”이 나무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틈을 메운 물질인 역청으로 덮인 나무를 말한다고 한다. (Some say it was cypress pine, or cedar. Others suggest that “gopher” did not refer to the type of wood, but rather to wood covered with pitch, the substance used to seal the cracks in the ark.)

## 방주의 특별한 모양

방주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보다 큰 동물들과 폐기물은 아마도 가장 낮은 층에 두었을 것이다. 생활공간은 아마도 지붕으로 덮인 맨 위층이었을 것이다. 방주의 지붕 근처에 빙 둘러서 18인치의 높이로 만들어진 넓은 창문을 통해서 빛과 공기가 들어왔다.

방주의 측면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커서 대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닫으셨다(창세기 7:16).

## 방주의 목적

방주의 목적은 하나였다. 즉, 대홍수가 있는 수개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떠다닐 수 있는 피난처. 거기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으며, 동력을 주는 아무 장치도 없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해 항해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이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맡긴 사람들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그분이 얼마나 오래 또는 얼마나 빨리 가게 하시든, 그분이 선택하는 곳으로 그들은 따라갈 뿐이다.

(The ark had one purpose—a floating refuge for Noah, his family, and the animals during the months of the Flood. It had no sails, no oars, and no other way to power it. It had no way for Noah or his family to navigate it toward any certain place. All movement was in the hands of God.

Noah and his family within the ark are excellent examples of people totally committed to God’s direction. Once in the ark, they depended completely on God to take them wherever He chose, for as long as He chose, and as fast as He chose.) **참조**



## 인생의 시야

사람의 시야는 약 170도 정도 되어서 앞면과 좌우 옆만 볼 수 있다.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시야가 350도나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다. 말은 가만히 있어도 눈동자의 움직임에 의해 앞뒤 좌우의 있는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주에 임하는 말을 보면 대개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나온다.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로 만든 눈가리개를 부착해 뒤쪽과 옆쪽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일부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에 예민한 말들은 소리를 차단하는 귀마개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리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뒤에서 혹은 옆에서 다른 말이 따라 붙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지 않게 됨으로써 오직 앞으로만 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만 보지 않고서는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의 망막에 상이 맺힐 때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이 자극은 시신경 세포로 전달된다. 시신경 세포는 뇌의 후미에 위치한 시각중추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각중추에 이르기까지 신경 회로가 온전해야 한다. 망막에서 형성된 신경신호가 시각중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경회로의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물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란 거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골리앗이 거인으로서 엄청난 힘과 용맹을 자랑하였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시신경 회로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골리앗인데 이 장수의 신장이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규빗(cubit)이란 단위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성인의 경우 약 45cm 정도되므로 여섯 규빗은 2m 70cm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뼘이나 더 되니까 한 뼘의 길이가 약 20cm가 되므로 골리앗의 키는 약 2m 90c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다.

학자들은 골리앗이 이렇게 키가 크기까지에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골리앗의 경우 뇌하수체 비대증이 있어서 성장호르몬의 과다분비가 일어나 거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고 본다.

사람의 뇌에서 뇌하수체는 양쪽 눈에서 오는 시신경 다발이 교차하는 곳, 즉 교차핵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뇌하수체가 부풀어 올라 비대해지면 시신경 교차핵을 누르게 되어 정상적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치 터널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는 듯 하다고 해서 이런 장애를 **터널시각(Tunnel vision)**이라 한다.



다운로드: [http://www.sapdesignguild.org/editions/highlight\\_articles\\_01/vision\\_physiology.asp](http://www.sapdesignguild.org/editions/highlight_articles_01/vision_physiology.asp)

경주하는 말의 눈에 눈가리개를 하여 앞만 보게 한 경우처럼 골리앗의 시야도 좌우 옆면은 잘 보지 못하고 정면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골리앗은 낫 투구를 쓰고 물고기 비늘처럼 만든 낫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 낫 경갑을 차고 어깨에는 낫 단창을 매었다. 그의 손에는 베틀 채 같은 창 자루가 들려 있었다. 힘이 장사여서 손에 든 창을 쉽게 다룰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육중한 갑옷과 투구로 온 몸을 감싸고 있어서 움직임은 날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소년 다윗은 재빠르게 엘라 골짜기를 가로질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적절히 은폐물을 이용했을 것이다. 터널시각을 가지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골리앗은 이리 저리 몸을 숨겨가며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다윗의 모습을 중간에 놓쳐 버렸고 이런 와중에 다윗은 골리앗 가까이 충분히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평소 양을 치며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해 물매질을 하였기 때문에 능숙한 솜씨로 사정거리 안에 있던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우람한 덩치만 믿고 호령을 하다가 날렵하고 용감한 다윗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는데 그 해골의 이마에 돌이 박혀있었다. 이마 좌우거리를 측정하여 그 사람의 키를 계산해 본 결과 그 키가 2m 90cm나 되는 장대한 체격의 거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연대측정을 해 본 결과 약 BC 1,000년경의 사람으로 다윗의 시대와 일치하였다. 발견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체격이 거대하였고 이마에 돌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았던 연대가 다윗 시대임을 종합해 볼 때, 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하였다.

골리앗이 장대하여 그가 가진 힘을 뽐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는 어린 소년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긴 칼은 자신의 목을 베는 도구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시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소년 다윗의 시야는 골리앗에 비해 왜소한 자신의 몸집에 있지 않았다. 그의 시야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무장을 하지 않은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작 물매 둘 다섯 개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의 시야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Everybody here will see that the LORD doesn't need swords or spears to save his people. The LORD always wins his battles, and he will help us defeat you. - CEV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 NIV

and that all this assembly may know that the LORD does not deliver by sword or by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s." - NASB

우리의 시야가 돈에 맞춰 있으면 평생을 돈을 좇아 허우적거릴 것이다. 세상의 재미에 맞춰져 있으면 늘 새로운 자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갖추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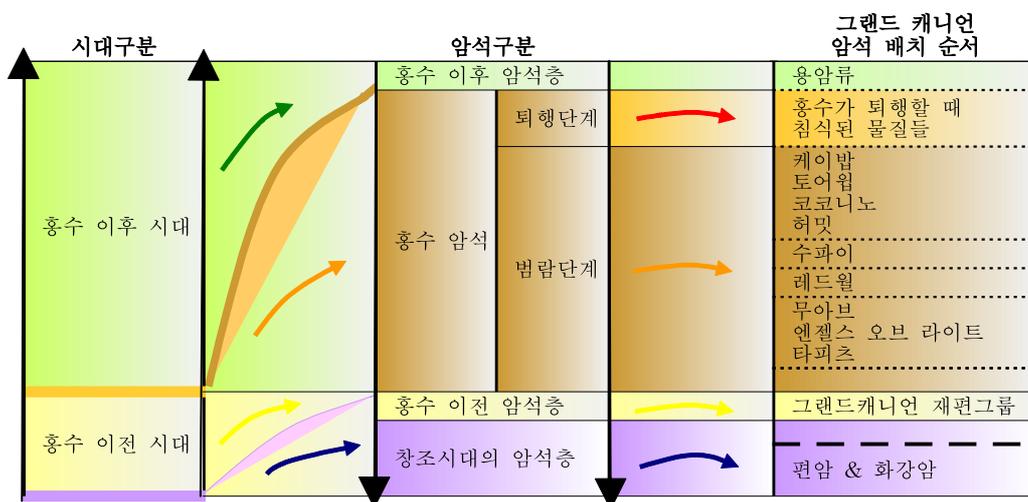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참조**

##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지질학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앞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 지질학자들과는 달리, 창조론적 지질학자들은 역사에 대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문서 기록인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이 '지질학' 책은 아닐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지질학적 실마리를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지질학적 그림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단지 다음과 같이 묻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구의 지질에 영향을 미쳤을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연구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암석이 매우 짧은 두 기간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기간은 행성이 완전히 생성된 약 6,000년 전인 6일 창조 주간이고, 두 번째 기간은 행성이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 1년 동안의 대홍수 때입니다. 비교해 보면, 창조와 대홍수 사이의 대략 1,500년 동안 혹은 그 이후로 대략 4,500년 동안에는 지질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림에 지질학적 모델이 간략히 도해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의 성경적 시간선(time-line)에서 상부는 가장 최근 시간을, 하부는 가장 초기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로축의 연대(time-scale)는 네 부분, 즉 창조 사건, 대홍수 사건, 대홍수전 시기와 대홍수후 시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상부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암석이, 하부에 가장 초기의 암석이 있는 암석 스케일(중양)입니다.

암석 스케일에서 길이 차이는 연대에 대응하는 부분의 길이와 대조를 이루어 오늘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암석물질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랜드캐니언에서 발견되는 주된 암층은 그것들이 형성된 때를 지시하면서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의 실재적 적용을 위해서,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지질작용 및 그것들의 시간 관계를 가진 광범위한 틀(framework)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홍수 사건은 두 단계, 즉 육지로 홍수물이 차오르는 범람기(Inundatory stage)와 홍수물이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후퇴기(Recessive stage)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틀 내에서, 현장에 있는 암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암석은 암석 스케일이 지구의 전체 역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맞아떨어집니다.

그랜드캐니언의 암벽에는 두꺼운 수평적 지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여러 주를 가로질러 수천 평방킬로미터까지 뻗어있습니다. 퇴적암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대홍수 전이나 후에 퇴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딘 지질학적 작용으로는 그만큼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일 만큼 충분한 시간과 대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창조나 대홍수 사건 때 퇴적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캐니언의 암벽을 이루는 수평적 층에는 산호, 조가비, 바다나리, 달팽이 및 식물의 화석화된 잔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창조주간에 퇴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대홍수 동안에 묻혔음이 틀림없습니다.

동물의 보행렬(trackways) 흔적화석은 또 다른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수파이 층군(Supai Group)과 코코니노 사암층에서 발자국들이 발견됩니다. 발자국은 동물들이 살아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이 죽기 전에 그 지층이 퇴적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물로 완전히 덮이기 전인 범람기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과 약간의 사고력으로, 수평적 층은 물이 차오르는 대홍수의 초기에 퇴적되었다고 정했습니다. 캐니언의 다른 부분들, 즉 바닥에 있는 변성암(창조, 대홍수 전 혹은 대홍수 초기), 상부의 침식면(대홍수 후퇴기), 용암류(대홍수후 시기), 그리고 캐니언 자체의 깎인 부분(대홍수 후퇴기나 대홍수후 시기)에도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질학이야말로 암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Biblical geology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rocks.).**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mailto: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